

# 視覺形容詞의 語彙論

金 倉 燮\*

## 1. 序 論

自然界에서 視覺的 知覺의 내용이 되는 것은 空間 속에 존재하는 대상의 빛·모양·크기·위치 그리고 속도이다. 이 가운데 빛은 오직 視覺에 의해서만 지각될 수 있고, 모양·크기·위치·속도는 視覺 외의 감각기관에 의해서도 지각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視覺에 의해 지각된다. 그런데 速度는 位置와 時間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속도를 지각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속도는 時間이라는 次元으로 인해 빛·모양·크기·위치·속도 가운데 가장 異質的이라 하겠다. 本稿에서는 속도를 제외한 나머지 빛·모양·크기·위치만을 진정한 視覺的 知覺의 내용이라고 본다.

이들 視覺的 知覺의 내용을 표현하는 語彙로는 ‘푸르다·둥글다·길다·멀다’ 등의 형용사와 ‘푸릇푸릇·둥글둥글·길이·멀리’ 등의 부사, 그리고 ‘파랑·길이’ 등의 명사가 있는데, 여기의 부사와 명사는 일반적으로 형용사에서 파생된 것이어서 이들 가운데 형용사가 가장 기본적이라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視覺的 知覺의 내용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을 視覺形容詞라 하여 그것들을 고찰의 대상으로 한다.<sup>1)</sup>

최 현배(1971 : 483-4)에서는 이른바 속걸그림씨(性狀形容詞)의 한 갈

---

\* 전북대

1) 視覺的 知覺의 표현에는 ‘예쁘다, 아름답다, 맑다’ 등도 있으나, 이들에는 감각에 의한 客觀的인 知覺 内容 외에 主觀的 評價의 의미가 들어 있어서 본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래로 ‘感覺的 形容詞’를 들고 그중에 ‘視覺的 形容詞’와 ‘時間空間感覺形容詞’라는 부류를 다음과 같이 보였다.

(1) 視覺的

- a. 빛(色) : 검다 희다 푸르다 누르다 붉다
- b. 별(光) : 밝다 어둡다

(2) 時間空間感覺

- a. 時間 : 빠르다 더디다 지리하다 급하다 늦다 이르다 늦다
- b. 空間

- ① 뜨기(距離) : 멀다 가깝다
- ② 物形 : 크다 작다 둥글다 모나다 바르다 빼풀다 빼투름하다 굽다
- ③ 上下 : 높다 낮다 깊다 얕다 둘다 뾰족하다

본고에서는 위 (1) (2)에서 (2a)의 것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나로  
묶어 ‘視覺形容詞’라는 하나의 語彙的 範疇에 넣고자 한다. 비록 (2b)  
의 것들이 視覺 이외의 감각에 의해서도 지각될 수 있는 내용의 표현이  
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視覺的 知覺內容의 표현이고, 또 詞자의 視覺  
形容詞들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형태론적 과정이 있기 때문  
이다.<sup>2)</sup>

詞자가 생각하는 視覺形容詞는 크게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3) 視覺形容詞

- a. 빛형 용사……① 검다 푸르다 밝다 어둡다 밝다 흐리다……  
② 거멓다 밟그스름하다 밝더맑다……
- b. 空間形容詞……① 둥글다 폰다 바르다 긴다 높다 멀다……  
② 길둥글다 폰바르다 기르스름하다 높직하다……

그런데 視覺形容詞에는 (3)에 예시한 외에 ‘환하다·어슴푸레하다·  
통툭하다’ 등의 固有語 合成語와 ‘清明하다·至近하다·廣闊하다’ 등의  
漢子語들도 포함되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은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漢

2) 본고의 視覺形用詞들만이 ‘x스름하다’ 형의 단어형성을 가짐을 말한다.  
'x 같다'의 단어형성도 본고의 시각형용사만을 입력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다(cf. 본고 3장).

子語는 言衆에게 外來的 要素로 分明하게 인식되어 單語形成의 측면에서나 文體의 측면에서 固有語와는 다른 차원에 속하며, ‘환하다·뭉툭하다’ 등은 고유어이기는 하나 그 語基가 품사적으로 불분명하거나 본래 역시 視覺形容詞인 語基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어서 위 (3)의 형용사들과는 語彙論의으로 다른 차원에 속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3)의 각 항목의 ①처럼 單一語로서의 視覺形容詞와 ②처럼 단일어를 語基로 하여 派生되거나 複合된 合成語들만을 고찰한다. 그들의 意味를 成分分析함으로써 視覺形容詞의 意味領域들을 分類하고, 아래 入力과 出力이 모두 視覺形容詞가 되는, 品詞變化가 없는 單語形成들에 의한 視覺形容詞 單語場의分化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單一語 視覺形容詞들의 意味成分 分析

本章에서는 단일어인 視覺形容詞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下位分類와 意味分析을 행해 본다.

### 2.1. 빛형용사

빛형용사에 들 가능성이 있는 형용사에는 다음 (4-8)의 것들이 있다.

(4) a. 푸르다  
    b. 블라 블라

b. 검다 희다

(5) 밝다 어둡다

(6) 맑다 흐리다

(7) a. 질다 옅다

b. 되다 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고에서는 최현배(1971)에서 ‘視覺的 形容詞’에 넣은 (4-5)와 그외에 (6)을 넣어 함께 빛형용사로 묶고 (7)은 빛형용사가 아니라고 본다. (4-5)는 視覺에 의해 빛을 감각해야만 지각될 수 있

는 내용이므로 빛형용사로 분류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6)을 빛형용사에 추가하고 (7)을 제외하는 데는 언어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먼저 (4-6)과 (7a)의 예들은 다음과 같이 빛이나 色에 대한 서술이 될 수 있으나 (7b)의 ‘되다, 물다’는 그렇지 못하다.

- (8) a. 빛／색이 {푸르다, 밝다, 맑다, 질다, 옅다}  
 b. 빛／색이 {\*되다, \*묽다}

그러므로 ‘묽다’, ‘맑다’가同一語源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맑다’는 빛형용사이고 ‘묽다, 되다’는 빛형용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질다, 옅다’는 (8a)처럼 빛이나 色에 대한 서술이 될 수 있지만 빛이나 色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았을 때는 쓰일 수 없다.

- (9) a. 하늘이 {푸르다, 밝다, 맑다……}  
 b. 하늘이 {\*짙다, \*옅다, \*되다, \*묽다.}

‘짙다, 옅다’는 “病色·嫌疑·푸른色이 짙다／옅다”처럼 어떤 전제된 상태의 程度를 표시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라고 생각된다.<sup>3)</sup>

(6)의 ‘맑다’는 그 反意語로 ‘흐리다, 濁하다’를 가지는데 ‘흐리다’와 對되는 의미의 ‘맑다’만이 視覺形容詞라 해야겠다.

- (10) a. 하늘이 {맑다, 흐리다, \*탁하다}  
 b. 물이 {맑다, 흐리다, 탁하다}  
 c. 공기가 {맑다, \*흐리다, 탁하다}

(10c)의 ‘맑다, 탁하다’는 嗅覺的 표현인데 반해 (10a, b)의 ‘맑다, 흐리다, 탁하다’는 視覺的 표현이다. ‘맑다’는 視覺的 표현, 嗅覺的 표현이 다 가능하다.

單語形成의 측면에서도 (4-6)의 것들은 시각형용사이고 (7)은 시작

---

3) ‘짙다, 옅다’는 漢字語 ‘津하다, 軟하다’와 音韻·意味가 매우 유사하다.  
 ‘얇다, 얇다, 훑다’ 등과 함께 混淆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형용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4~6)의 형용사들은 '-으스름(하)-', '-얗-'에 의한 派生의 語基가 될 수 있는 데 반해 (7)의 것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으스름(하)-', '-얗-'은 視覺形容詞만을 語基로 하는 접사들인 것이다(cf. 본고 3장).

- (11) a. 푸르스름하다 거무스름하다 발그스름하다 (하늘이) 말그스름하다……  
b. \*질으스름하다 \*여트스름하다 \*뇌스름하다 \*물그스름하다 (공기가)\*말그스름하다
- (12) a. 누렇다 거멓다 발갛다 (얼굴이) 말갛다……  
b. \*지멓다 \*여멓다 \*되옇다 \*물겋다 (공기가)\*말갛다
- (13) \*어두스름하다 \*푸렇다 \*어두웡다 \*호옇다

(4-6)의 것들 중에도 '-으스름(하)-', '-怏-'의 語基가 될 수 없는 (13)의 경우들이 있으나, 적어도 그 성원들 중에 하나 이상이 '-으스름(하)-', '-怏-'의 語基가 될 수 있는 데 비해 (7)의 것들은 성원들 중 어느 것도 이 파생이 불가능하다. (13)의 불가능이 단어형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연의 소치라면 (11b), (12b)의 불가능은 어휘론적 범주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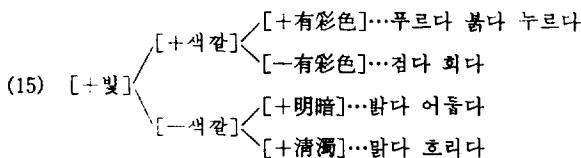
(12a)는 다시 접두사 '새(시)/시(ㅅ)-'의 語基가 될 수 있다.

(14) 짓누렇다 시꺼멓다 새빨갛다 샛말갛다

그런데 '새(시)/시(ㅅ)-'은 색체 표현의 형용사에만 접두하는 접사이므로(宋詰儀 1977 : 32), (12a)의 入力이 되는 (4-6)의 형용사들이 최소한 '빛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4)의 형용사들은 각각 '파랑·빨강·노랑·검정·하양'의 색깔 이름의 파생명사를 가지고 전통적으로 이 색들만이 5色으로 불려왔다. 또 (4a)의 형용사들은 3항적 대립을, (4b, 5, 6)의 형용사들은 서로 極對立(polar opposition)(Leech 1981 : 100-2)을 이룬다. 이런 對立의 기반은 각각 색깔, 明暗, 清濁, 有彩色, 無彩色이므로, 이들을 意味成分으로

로 택하여 빛형용사를 (15)와 같이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 2. 2. 空間形容詞

공간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視覺的 대상은 모양과 크기와 위치를 가지는데 이를 표현하는 형용사들을 空間形容詞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음이 필자가 생각하는 단일어로서의 공간형용사들이다.

- (16) a. 둥글다 곧다 바르다
- b. 절다 짧다 넓다 좁다 굽다 가늘다 두껍다 얇다 크다 작다 잘다 품다
- c. 높다 낮다 깊다 얕다
- d. 멀다 가깝다

(16a)의 형용사는 대상의 공간적인 모양만을 나타낸다.<sup>5)</sup> 그런데 모양은 그 대상 자체에 의해 혹은 그 주위의 다른 요소(배경)와의 비교에 의해 부각되는데, ‘둥글다, 곧다’는 그 대상 자체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에 대해 배경이 되고, ‘바르다’는 그 대상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直線이나 平面이 아울러 배경이 된다.

- 
- 4) 明暗과 清濁의 형용사들은 함께 어떤 색깔에 대한 서술이 될 수 있어 함께 뜻일 수 있다고 보고 [+ 색깔]에 대해 [- 색깔]의 의미를 인정한다.
  - ① 밝은/어두운 {푸른색, 붉은색, 누른색, ?검은색, 흰색}
  - ② 맑은/흐린 {푸른색, 붉은색, 누른색, 검은색, 흰색}
  - 5)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로 (16a)에 對가 되는 ‘모(가) 나다, 굽다, 비뚤다, 기울다’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들은 다음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形容詞가 아니다.
  - ① 둘이 모(가) {\*나다, 났다}.
  - ② 허리가 {\*굽다, 굽었다}.
  - ③ 코가 {\*비뚤다, 비뚤어졌다}.
  - ④ 기둥이 {\*기울다, 기울었다, 기울어졌다}.

- (17) a. 굴렁쇠가 둥글다.  
 b. 둉근 기둥파 모 난 기둥  
 c. 돌이 둥글다.
- (18) a. {천사가, 기둥이} 곧다.  
 b. \*벽이 곧다.  
 c. \*상자가 곧다.
- (19) a. {線이, 기둥이} 바르다.  
 b. {벽이, 바닥이} 바르다.  
 c. \*공이 바르다.

‘둥글다’는 線的으로(17a), 面的으로(17b), 立體的으로(17c) ‘둥글’ 수 있다. ‘곧다’는 面的으로나 立體的으로는 ‘곧을’ 수 없고(18b, c), 線的으로만 ‘곧을’ 수 있다(18a). ‘바르다’는 立體的으로는 바를 수 없고(19c), 線的으로(19a), 面的으로(19b) ‘바를’ 수 있는데, ‘바른 線’은 ‘곧은 線’을, ‘바른 面’은 ‘平平한 面’을 含意한다. 그런데 ‘平平한 面’은 ‘곧은 線’들로만 이루어진 面이므로 ‘곧다’의 意味成分으로 [+곧음]을 인정한다면 ‘바르다’ 역시 [+곧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바르다’는 ‘基準에 대해서’의 意味를 가진다. (19)에서 ‘線’은 문맥에 주어진 어떤 사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대해 平行이나 直角을 이루며, ‘기둥, 벽’은 地面에 대해 垂直, ‘바닥’은 地面에 대해 平行을 이룬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바르다’는 또 [+基準]이라는 意味成分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16a)의 세 형용사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sup>6)</sup>



6) (20)에서 [+모양]의 上位에는 [+空間]이 있다. [곧음]을 [基準]의 上位에 둔 것은 ‘둥글다, 곧다’의 反義性보다 ‘곧다, 바르다’의 類義性이 두드러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이 형용사들에는 [線的], [面的], [立體的]이라는 非辨別의 補充成分도 인정된다.

(16b, c, d)의 形容사들은 空間的 量을 나타낸다. 수학적으로는 空間的 量의 종류에 1 次元的 量(길이, 거리), 2 次元的 量(넓이), 3 次元的 量(부피)의 3 가지가 있지만 국어의 空間形容詞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게 分節되어 길이, 넓이, 굵기, 두께, 크기, 높이, 깊이, 거리 등의 표현으로 나뉜다.

(16b)의 ‘깊다, 크다’ 등은 그 대상 자체에 固有한 空間量을, (16d)의 ‘멀다, 가깝다’는 그 대상의 位置에 따른 空間量(즉 거리)을 나타낸다. 그런데 (16c)의 ‘높다, 깊다’ 등은 空間的 量이 분포하는 위·아래의 方向을 나타내면서, 그에 대해 固有量을 표현하거나 거리를 표현하는데 그 가름은 문맥에 의한다.

- (21) a. {건물, 산, 안테나}가 높다／낮다.  
b. {지붕, 구름}이 높다／낮다.
- (22) a. {강이, 뿌리가} 깊다／얕다.  
b. {바닥이, 잠수함의 위치가} 깊다／얕다.

(21, 22)의 形容사는 모두 上下의 方向을 의미하고, 거기에다가 (21a, 22a)에서는 대상 자체에 固有한 量을, (21b, 22b)는 대상의 위치를 거리로써 나타내는 것이다. 거리라는 空間量은 대상이 고유하게 가지는 量이 아니다. 그러므로 (16b, c, d)의 形容사들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量], [固有], [方向], 그리고 各 極對立語雙을 구별하기 위한 [大]의 의미成分이 필요하다. [量]은 가장 上位의, [大]는 가장 下位의 意味成分이 되는데, 문제는 [固有]와 [方向]의 순서이다. 만일 [固有]를 [方向]의 上位에 놓는다면 (16c)의 ‘높다’ 등은 모두 [+固有]의 ‘높다’, [-固有]의 ‘높다’로 나누어져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만일 [direction]을 上位에 놓는다면 두 意味의 ‘높다’가 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direction]-[固有]의 위계를 취하기로 한다. ‘멀다, 가깝다’는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上下나 水平의 方向과 관계가 없어 [-方向]을 가진다.

- (23) a. 驛(驛)이 멀다.  
     b. 그 떨은 지구에서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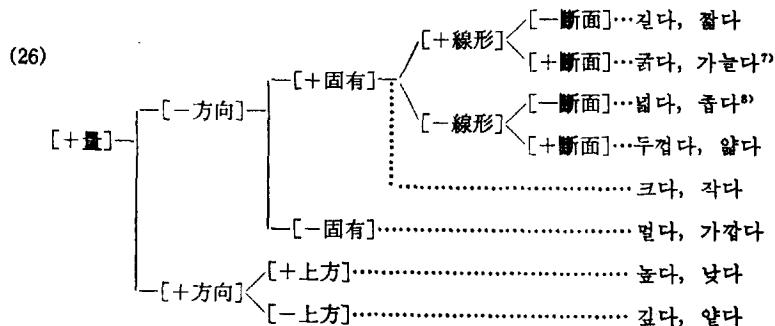
(16b)의 形容詞들은 無方向의 固有한 空間量을 表현하는 것들이다. 이중에서 ④‘굵다, 가늘다, 두껍다, 얕다’는 立體의 斷面의 크기를 통해서 그 立體의 量을, ⑤‘길다, 짧다, 넓다, 좁다’는 斷面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대상의 線的 量이나 面的 量을 나타낸다. 한편 ⑥‘길다, 짧다, 굵다, 가늘다’는 線形의 대상의 크기를, ⑦‘넓다, 좁다, 두껍다, 얕다’는 面形의 대상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들을 辨別하기 위해서는, 팔이나 기둥처럼 길이를 가지는 대상과 판자나 책처럼 面을 가지는 대상을 나눌 [線形]의 成分과, ⑧群으로부터 ⑨群을 갈라낼 [斷面]의 成分이 필요한데, 역시 이 두 意味成分間의 位階가 문제된다. [線形]을 上位에 놓는다면 ⑩群과 ⑪群으로, 斷面을 上位에 놓는다면 ⑫群과 ⑬群으로 크게 뚜이는데, 본고에서는 [線形]을 上位의 자질로 삼기로 한다. 그 이유는 ④群은 모두 立體의 量을, ⑤群은 線的 量과 面的 量을 나타내고, ⑥群은 線的 量과 立體의 量, ⑦群은 面的 量과 立體의 量을 나타내는데 ⑧群이 가장 異質의인 두 量으로 뚜였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面의인 量은 立體의 量과 동질적으로 파악되어 다음 (24)처럼 ‘크다, 작다’로 표현될 수 있지만 線的 量은 그렇지 못하다.

- (24) a. {운동장, 길}이 넓다／좁다.  
     b. {운동장, 길}이 크다／작다.  
 (25) a. {실, 기둥}이 길다／짧다.  
     b. {\*실, 기둥}이 크다／작다.

(24a, b)는 거의 同義이나 (25a, b)는 결코 同義가 아니다. 특히 ‘실이 크다／작다’는 非文이다.

[線形]을 [斷面]의 上位에 놓는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인 ⑩群과 ⑪群에서 길이와 굵기, 넓이와 두께가 각각 立體의 量을 결정하는 요소들로서의 짹이라는 관계가 파악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 것을 토대로 [量]形容詞가 分節되는 모습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26)에서 ‘크다, 작다’는 [+固有]까지만 의미가 명세된다. 이들은 길이와 굵기에 의한, 또는 넓이와 두께에 의한 분석을 거친 立體的 量을 나타내지 않고, 그러한 분석 없이 바로 지각되는 立體的 量을 나타내며, 앞의 (24b)에서 보았듯이 넓이의 大小도 그대로 ‘크다, 작다’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높다, 낮다, 깊다, 얕다’의 경우에 [+固有]의 선택은 문맥에 의하는 것으로 보아 ‘높다,, 높다,’식으로 나누지 않았다. 또한 이 형용사들에는 [線形]의 자질이 無關하다. 똑같이 線的 量을 나타내더라도 ‘길다’ 등은 대상이 [+線形]으로 인식되어야만 사용될 수 있는데 비해, ‘높다’

7) ① [劃, 눈썹]이 {굵다/가늘다, \*넓다/\*좁다}.

② [길, 江]이 넓다/좁다.

①②는 모두 ‘폭이 넓다/좁다’의 의미이다. 그런데 ①에서 ‘굵다, 가늘다’가 쓰인 것은 ‘劃·눈썹’이 面的 量을 가질 수 없다고 인식해서 次善策으로 ‘굵다, 가늘다’가 선택되었다고 본다.

8) ① 운동장이 넓다/좁다.

② 길이 넓다/좁다.

①의 ‘넓다’의 파생명사는 ‘넓이’로, ②의 ‘넓다’의 파생명사는 ‘너비’로分化되었다. 그러나 ②의 ‘넓다’도 결국 幅의 크기를 통해서 面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형용사로서의 ‘넓다’는 분화되지 않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낸다고 본다.

등은 앞에 나타나는 [土上方]에 의해 대상에서 線的인 성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 (27) a. \*저 공 모양의 바위가 길다／짧다.  
 b. 저 공 모양의 바위가 높다／낮다.

### 2. 3. 計量과 모양

空間的 量은 언어적으로 計量의 표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길다, 짧다’를 예로 하여 空間的 量의 計量의 表現을 살펴보자.

- (28) a. 그 떠는 얼마나 기니／\*짧니?  
 b. 그 떠는 1m 정도 길다／\*짧다.  
 (29) 흰 떠가 검은 떠보다 10cm 더 길다／짧다.  
 (30) a. 떠가 길다／짧다.  
 b. 떠가 긴／짧은 편이다.  
 c. \*떠가 10cm 긴／짧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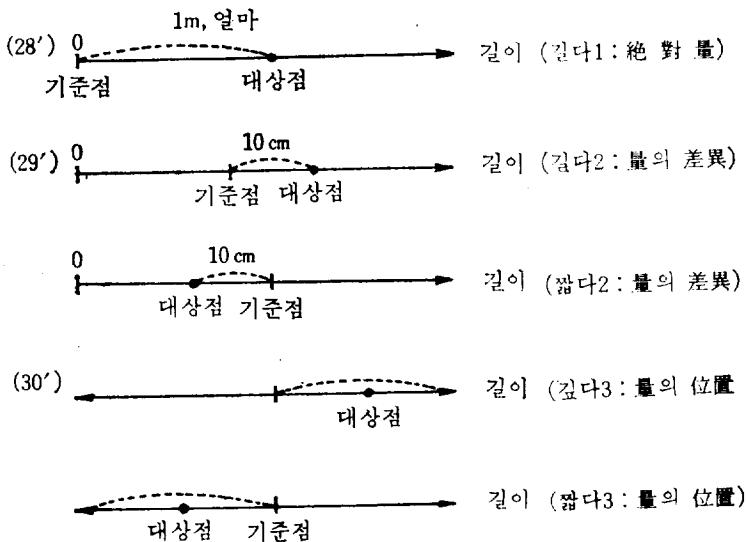
(28a)에서 話者가 그 떠의 길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이 질문한 경우 ‘짧다’는 표현은 불가능하다. (28b)에서는 설혹 話者가 떠의 길이가 1m 정도인 것은 짧은 편에 든다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짧다’는 표현은 불가능하다.<sup>9)</sup> (30a, b)는 同意이다. 그런데 (30c)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떠가 10cm 길다／짧다’라는 문장은 (30)과 같은 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29)와 같은 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야겠다. ‘얼마, 1m, 10cm’과 같은 표현을 計量의 表現이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은 (28)에서는 ‘길다’에 대해서만, (29)에서는 ‘길다, 짧다’에 다 가능하고, (30)에서는 ‘길다, 짧다’에 다 불가능하다.

(28-30)의 ‘길다, 짧다’의 의미를 그림으로 각각(28'-30')로 나타낼

---

9) ‘그 떠는 1m 정도 기니까 짧은 편이다’라는 문장에서 ‘기니까’는 (28)에서의 ‘길다’와 같은 用法으로, ‘짧은’은 (30)에서의 ‘짧다, 짧은’과 같은 用法으로 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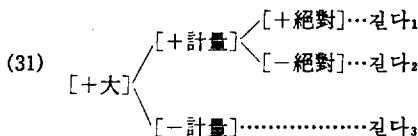
수 있다. 그런데, (28'-30)의 각 문장에서 主語 뒤에 ‘길이가’라는 표현을 삽입해도 그 문장들의 同義性과 文法性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 문장들은 모두 ‘길이’라는 尺度에 대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28'-30')에서 ‘길다’는 대상점이 기준점의 오른쪽에 위치함을, ‘짧다’는 대상점이 기준점의 왼쪽에 위치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에서는 零이 기준점이 되어서 대상점이 기준점의 왼쪽에 위치할 수 없으므로 ‘짧다’는 불가능한 표현이 된다. 일반적으로 尺度名詞는 [+大]의 形容詞로부터만 派生되는데(宋喆儀 1977: 19-21) 그 이유도 [-大]인 형용사는 絶對量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것이다. (29')의 기준점은 보통 ‘x보다’로써 문맥에 나타나지만 (30')의 기준점은 對象의 範疇에 따라 혹은 對象의 機能에 따라 주어진다.<sup>10)</sup>

10) Leech (1981: 101-2) 참조. 그는 object-related norm, speaker-related

위의 ‘길다’의 의미 3가지를 구별하려면 [大]의 밑에 [計量], [絕對]의 補充成分이 필요할 것이다.



[+量, -大]인 형용사 중에 어떤 경우에도 [+計量]을 가지지 못하는 형용사가 있다. 앞의 2.2.의 (26)에서 본 ‘굵다’ 외에 [+量, -方向, +固有, +大]인 ‘굵다<sub>2</sub>’가 존재하는데 이 형용사의 極反對語는 ‘잘다, 풀다’의 2개이다.<sup>11)</sup>

(32) a. 바위가 {크다／작다, \*굵다<sub>2</sub>／\*잘다・\*풀다}.

b. 감자가 {크다／작다, 굵다<sub>2</sub>／잘다・\*풀다}.

c. 모래가 {\*크다／\*작다, 굵다<sub>2</sub>／잘다・풀다}.

d. 가루가 {\*크다／\*작다, 굵다<sub>2</sub>／잘다・풀다}.

(33) a. 이 감자가 저 감자보다 10cm<sup>3</sup> 더 {크다／작다, ?굵다<sub>2</sub>／\*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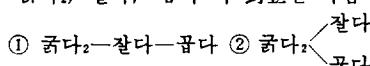
b. 이 모래가 저 모래보다 1mm<sup>3</sup> 더 {?굵다<sub>2</sub>／\*잘다・\*풀다}.

(33)에서 보듯 ‘잘다, 풀다’는 [-計量]만을 가진다.

[+量]의 意味와 관련된 문제로, 문맥에 따라 이 [+量]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量]의 여러 形容詞 중에서도 ‘길다’

norm, role-related norm을 들고 있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極對立語들은客觀的 意味의 것들이므로 speaker-related norm은 無關하다고 할 수 있다.

11) ‘굵다<sub>2</sub>, 잘다, 풀다’의 對立은 다음 ①이 아니라 ②처럼 나타내야 한다.



그 이유는 (32b, d)에서 보듯 ‘잘다, 풀다’가 각기 다른 主語選擇制約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主語選擇制約은 主語가 지시하는 대상의 일반적 크기에 관한 것인데, 이와 유사한 제약을 ‘넓다, 좁다’에서도 볼 수 있다.

③ 운동장이 {넓다／좁다, 크다／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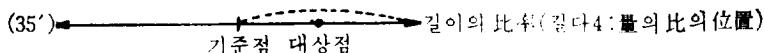
④ 보자기가 {?넓다／?좁다, 크다／작다}.

⑤ {카드가, 점이} {?넓다／\*좁다, 크다／작다}.

가 그런 變身을 잘 보여 준다.

- (34) a. {철사가, 기둥이} 길다.
- b. ??{철사가, 기둥이} 길게 생겼다.
- (35) a. 얼굴이 길다.
- b. 얼굴이 길게 생겼다.
- c. ?얼굴이 길이가 길게 생겼다.

(34a)의 ‘길다’는 [+量]의 의미를 가졌고 ‘철사가 긴 편이다’라는 [一計量]의 ‘길다<sub>3</sub>’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35a, b)의 ‘길다’는 얼굴의 다른 크기, 예컨대 幅에 비해 길이가 길다는 정도의 뜻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35c)처럼 ‘길다’가 [+量]으로 해석되게 하는 ‘길이가’라는 요소를 더해 주면 상당히 어색해진다. (35a, b)의 ‘길다’의 의미를 그림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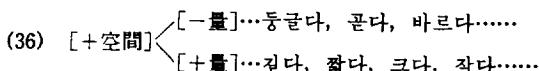
그런데 2.2.의 [+모양]의 形容詞들을 보면 ‘모양’은 대상이 그 자체를 배경으로 혹은 외부의 어떤 배경과의 비교에 의해서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35a, b)의 ‘길다’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야겠다. 그렇다면 [-量]은 [+모양]과 同價가 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길다’ 외에 [+量] → [-量]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예는 무엇이 더 있겠는가 생각해 보자.

‘크다, 작다’는 대상의 전체적인 空間量을, ‘높다, 낮다, 깊다, 얕다’는 上下로서 方向이 정해진 공간량을, 그리고 ‘멀다, 가깝다’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固有]의 공간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상 자체의 다른 空間量에 대한 比較로서의 해석이 불가능하여 모양(즉 [-量])을 표

현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눈이 크게 생겼다’에서 ‘크다’는 ‘눈’ 자체의 모양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배경으로 한 눈의 空間量을 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눈’의 모양이 아닌 ‘얼굴’의 모양을 뜻한다. 이러한 ‘크다’는 여전히 [+量]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넓다, 좁다’는 길이에 대한 幅의 比를 나타낼 경우에 모양을 뜻할 수 있을 것이다. ‘굵다, 가늘다, 두껍다, 얇다’는 길이에 대한 굵기의 比, 넓이에 대한 두께의 比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量]→[-量]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量, 一方向, +固有, 土線形]의 4雙의 極對立語들만이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極對立語雙들 가운데 ‘길다, 가늘다, 좁다, 얇다’ 쪽이 ‘넓다, 굵다, 넓다, 두껍다’ 쪽보다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幅에 대한 길이의 比가 큰 쪽, 길이에 대한 굵기의 比가 작은 쪽, 길이에 대한 幅의 比가 작은 쪽, 넓이에 대한 두께의 比가 작은 쪽이 각각 그 반대의 경우보다 특징적인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sup>12)</sup>

이제 空間形容詞의 分類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量]의 ‘길다,’ 등을 (36)에 반영할 방법은 아직 분명치 않다. ‘길다,’ 등을 零變化에 의한 단어형성의 결과로 혹은 ‘길다’의 多意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필자로서는 後者를 택하고 싶다. 그들의 意味가 [+量]만 [−量]으로 바뀌었을 뿐 그 외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 한 單語가 그 多義 때문에 여러 意味領域에 속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單語場의 意味成分들이 어디서나

12) 본래의 모양 형용사 ‘둥글다, 골다, 바르다’도 極對立의 爪을 가지지 않는데, 이런 성격은 [−量]의 空間形容詞에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로 [−量]을 의미하는 ‘x스름하다’의 空間形容詞 形成도 ‘길다, 가늘다, 얇다’만을 입력으로 하는데 極對立 爪을 갖지 않는다.

一般性을 가지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아직 이런 면에서 재 조정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

### 3. 視覺形容詞의 單語形成

本章에서는 單一語인 視覺形容詞들이 單語形成 規則의 적용을 받아 다시 視覺形容詞를 이루는 모습을 본다. 먼저 3.1.에서는 각 단어형성 과정의 入力에 걸리는 제약을 살펴보고 3.2.에서는 단어형성의 出力인 合成語들의 意味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 3.1. 單語形成의 入力

2章에서 본 모든 單一語 視覺形容詞는 ‘-디-’複合에 의해 다시 視覺形容詞를 형성한다.

- (37) 푸르디푸르다 김디검다 어둡디어둡다 밝디밝다 흐리디흐리다……
- (38) 둉글디둥글다 곤디꼰다 길디길다 굵디굵다 깊디깊다 크디크다 잘디잘다  
굽디굽다 멀디멀다……
- (39) \*굽디굽다 \*기울디기울다 \*비풀디비풀다……

(39)가 불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형용사가 아닌 형식을 入力으로 했기 때문이다. 형용사만이 ‘-디-’複合이 入力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형용사가 ‘-디-’複合이 가능한가는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다. ‘-디-’複合形容詞는 ‘아주 어떠하다’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는데 (cf. 3.2.),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아주’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형용사는 ‘-디-’複合이 불가능하다 (cf. \*맞디맞다, \*그렇디그렇다). 그러나 이것이 ‘-디-’複合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많다, 쳇다’는 ‘아주’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도 ‘\*많디많다, \*쳇디쳇다’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디-’複合의 入力의 경향은 말할 수 있을 듯하다.拙稿(1981:67)에서는 客觀的인 感覺形容詞가 가장 잘 ‘-디-’複合을 이룰 수 있으며, ‘順하디順하다’와 같이 성

품을 표현하는 형용사도 ‘-디-’複合이 가능하다고 했다.<sup>13)</sup> 어쨌든 視覺形容詞는 모두 ‘-디-’복합이 가능하다.

‘-다랗-’派生의 入力은 [+空間 +量]의 형용사들이다.

- (40) \*푸르다랗다, \*검다랗다, \*맑다랗다……
- (41) \*둥글다랗다, 곧다랗다, \*바르다랗다
- (42) 기다랗다 짤따랗다 널따랗다 줍다랗다 굽다랗다 가느다랗다 얕따랗다 크다랗다/커다랗다 잘다랗다 높다랗다 품다랗다(깊다랗다 두껍다랗다 머다랗다) \*낮다랗다 \*얇다랗다 \*작다랗다 \*가깝다랗다
- (43) (\*되다랗다) \*묽다랗다 \*달다랗다 \*차다랗다 \*덥다랗다 \*무겁다랗다……

(42, 43)의 팔호 속의 것들은 辭典에는 올라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형식들이다. 그중에서 (42)의 것들은 詩와 같은 예에는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되다랗다’는 어떤 문맥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空間形容詞 중에서도 [+量]의 형용사만이 ‘-다랗-’派生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sup>14)</sup>

‘-직(하)-’는 3 가지의 다른 구성에 쓰인다. 첫째는 (45)와 같이 ‘직하다’가 보조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이고 둘째는 (46)과 같이 ‘-음직하다’가 동사에서 형용사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45) 칠수가 그 벽을 {먹음, 먹었음, 먹었었음}직하다.

(46) 그 벽이 {먹음, \*먹었음, \*먹었었음}직하다.

보조형용사로서의 ‘직하다’는 본용언으로 명사 서술어, 동사, 형용사를 다 가질 수 있고, (46)과 같이 동사에서 형용사를 파생하는 경우로는

13) 拙稿(1981)에서는 嗅覺·聽覺의 形容詞는 ‘-디-’複合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나, ‘비리디비린 냄새, 우렁차디우렁찬 목소리’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그 견해를 수정한다(cf. 李翊燮 1983).

14) (42)의 ‘꼽다랗다’도 잘 쓰이지 않는다. 신기철·신용철 편저의 「새우리 말큰사전」에서는 “목련꽃이 꼽다랗게 피었다”라는 예문을 들었지만, ‘꼽다랗다’는 美麗의 의미보다는 微細의 의미로서만 가능성성이 있다고 느껴진다

‘먹음직하다, 밀음직하다, 보암직하다, 바람직하다, 힘직하다’의 예로 한정된다. 둘째 경우의 ‘x-음직-’에는 ‘-스럽-’이 접미하기도 한다(예. 먹음직스럽다, 바람직스럽다, 밀음직스럽다).<sup>15)</sup>

‘-직(하)-’의 3 번째 종류는 형용사에만 접미하는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이다.

- (47) 길찍하다 널찍하다 굵직하다 알찍하다 큼직하다 높직하다 나직하다 멀찍하다 가지하다<sup>16)</sup>
- (48) \*짧직하다 \*좁직하다 \*가느직하다 \*작직하다 \*잘직하다 \*꼽직하다 \*깊직하다……
- (49) 되직하다(濃) 목직하다

(49)의 두 예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직(하)-’는 [+空間 +量]의 형용사만을 입력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직(하)-’는 {직}과 {하}의 두 형태소로 분석되는데 ‘직’은 형용사 어간에 접미하여 單語가 아닌 語根을 형성한다 (cf. 높직이, 높직-높직, 높직-하다). 그런데 이 ‘-직-’은 ‘-직, -직-’의 이형태를 가지며 ‘크-’에 접미할 때는 동명사 어미 ‘-음’을 개입시킨다. 그렇다면 ‘-직-’ 역시 동명사 어미 ‘-근’ 아래에서 ‘-직-’이 경음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國語史의 어느 단계에서 (45, 46)의 ‘-직-’을 포함해 세 가지 구성의 ‘-직-’ 모두 동명사 어미 ‘-ㅁ, -ㄹ’에 후행하는 標題名詞였을 가능성 이 짚다 하겠다. ‘높-직-’ 등에서는 語幹 뒤에 바로 명사가 연결된 셈인데, 원래 ‘-직-’과 같은 범주의 명사였을 ‘-듯’이 현대국어에서 동명사 어미 ‘-근, -ㄴ’뿐 아니라 동사 어간 뒤에 바로 결합할 수 있음을

15) 최현배 (1971 : 536)에서는 ‘값어치 도움 그림씨(價值補助形容詞)’라 하여 (46)에서와 같은 예를 들었으나 그의 보조형용사에 맞는 것은 사실은 (45)에서와 같은 형식이고 그 분류도 ‘미통 도움 그림씨(推測補助形容詞)’에 들어야 한다.

16) 共時的으로는 ‘나직하다, 가지하다, 목직하다’에서 ‘-직-’이 접미하면서 語幹의 ‘ㅈ, ㅊ, ㅂ’이 탈락했다고 보아야 하지만 通時的 說明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면, ‘動詞 語幹-적’의 구성이 그리 특이한 것은 아니다(cf. 먹을듯, 먹은듯, 먹듯, 먹듯이).

語根形成의 派生接尾辭 ‘-으스름-’이 접미하고 다시 ‘하-’가 더해진 합성어들이 있다.

- (50) 거무스름하다 푸르스름하다 발그스름하다 말그스름하다 부유스름하다…
- (51) a. 기르스름하다 알보스름하다 가느스름하다  
b. \*찰보스름하다 \*두껍스름하다 \*글그스름하다 \*넓부스름하다
- (52) 등그스름하다 \*고드스름하다 \*바르스름하다 (구부스름하다)
- (53) 질쭉스름하다 넓적스름하다 휘둥그스름하다

‘-으스름-’의 入力으로는 (50)의 빛형용사, (51)의 [+固有, 土線形]의 공간형용사, (52)의 [-量]인 공간형용사 그리고 (53)의 모양을 뜻하는 합성어근이다.<sup>17)</sup> 본고에서 빛형용사와 공간형용사를 둑어 視覺形容詞라는 語彙範疇를 설정한 것은 이들만이 ‘-으스름-’의 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나 취할 수 있는 입력의 종류에 있어서 ‘-으스름-’과 대단히 유사한 것으로 파생접미사 ‘-웃’이 있다.

- (54) 거뭇거뭇 푸릇푸릇 발굿발굿 말굿말굿 \*부웃부웃
- (55) \*기릇하다 \*알붓하다 가눗하다 조붓하다 ?너붓하다
- (56) 등굿하다 \*고둣하다 \*바逋하다 (구붓하다)

‘-웃’은 視覺形容詞 외에 몇 개의 動詞도 入力으로 취하지만(예, 기웃기웃, 구붓하다, 구깃구깃, 훌깃훌깃, 어릿어렷……), ‘-으스름-’은

17) ‘-으스름-’의 異形態로 ‘-으스름-’, -스름-, -우스름-, -웁스름-’이 나타난다.

① 舂-으스름- ② 질-으스름- ③ 가늘-스름- ④ 질쭉-스름- ⑤ 회-웁스름-  
⑥ 부j-우스름-

語基의 左 뒤에서 ②에서는 탈락하지 않던 접미사의 ‘으’母音이 ③에서 탈락하는 것은 ‘-으스름하다’型 형용사에 일반적인 5음절 어간을 만들기 위함이다(李秉根 1981). 이 音節數의 제약은 ④⑤⑥에서도 볼 수 있는데 ⑤에서는 ‘으’탈락을 막기 위해 ‘ㅂ’을 첨가하고 ⑥에서는 ‘i→u’의 변화를 일으켰다. (‘부j’는 ‘부회-’의 현대어형으로 설정함)

오직 한 예외(구부스름하다)를 제외하면 視覺形容詞만을 入力으로 한다. 그러나 視覺形容詞 안에서는 ‘-웃’의 (54, 55, 56)은 ‘-으스름-’의 (50, 51a, 53)과 동일 범주의 어기를 가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1a)와 (55)는 2.3.에서 본 ‘길다.’ 등과 같이 [量]→[−量]의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공간형용사의 종류와 동일한 형용사 즉 [+固有, 土線形]의 공간형용사를 입력으로 하였음이 특기할 만하다. 단일 (51a, 55)가 ‘길다.’ 등 [−量, +固有, 土線形]의 形容詞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한다면, (50, 51a, 52, 53)의 ‘-으스름-’은 [−視覺 −量]의 형용사를 입력으로 한다고 일반화할 수 있고, ‘-웃’에 대해서도 이것이 視覺形容詞 중에서 語基를 취할 때는 [+視覺 −量]의 형용사만을 입력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접미사 ‘-왕-’은 주로 빛형용사에 접미하여 역시 빛형용사를 파생한다. ‘둥그렇다’ 만이 모양([+空間 −量]) 형용사이다.

(57) 거멓다 하얗다(\*하이다) 파랗다(\*파르다) 빨갛다(\*붉다) 누렇다 발갛다  
말갛다 둥그렇다

‘붉다, 붉다’는 同一語源에서 ‘明’과 ‘赤’의 의미로 분화하기 전에 ‘발갛다’가 형성되고 여기에서 ‘빨갛다’가 형성되어 ‘赤’의 의미로 고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왕-’ 형용사는 派生語라는 인식이 그리 분명한 것 같지 않다. ‘하얗다, 파랗다’의 語基가 형용사 어간으로서는 공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든가 ‘밝다(明)’와 ‘발갛다, 빨갛다(赤)’의 의미변화도 ‘-왕-’ 형용사들을 語彙化한 것으로 보게 한다. 또한 색깔의 명칭 ‘파랑, 빨강, 노랑, 하양’이 ‘푸르다, 붉다’ 등 단일어인 [+색깔]의 형용사에서가 아니라 ‘-왕-’ 파생어에서 파생되었다는 점도 이들 ‘-왕-’ 형용사가 普衆에게 파생어 아닌 단일어로 인식되고 있다고 암시한다.

視覺形容詞에서 다시 視覺形容詞를 형성한 예로 다음의 것들을 더 들 수 있다.

- (58) 기름하다 짜름하다 야틈하다 두툼하다……  
 (59) 말쑥하다 질쭉하다 넓죽하다 깊숙하다 얕꽝하다……  
 (60) 드넓다 드높다 비좁다 새빨갛다……  
 (61) 겹푸르다 겹붉다 겹누렇다 회누르스름하다 회멀겋다 끈바르다 둥글넓적  
     하다 길둥글다 넓둥글다 높푸르다……

(58-59)는 ‘-직(하), -으스름(하)-’의 경우와 같이 어간에 접미사를 더해 어근을 형성하고 다시 ‘하-’를 더해 완전한 단어로서의 시작형용사를 형성한다. (58)은 意味와 入力의 제약에 있어서 앞에서 본 ‘-듯(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61)은 어간끼리의 복합어인데, ‘단일어간+단일어간, 단일어간+합성어간’의 2가지 구성 방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母音對立을 이용하는 内的變化에 의한 단어형성이 있다.

- (62) 갈쭉하다 가름하다 나붓하다 나부죽하다 도톰하다<sup>18)</sup> 멀쭉하다 멀끔하다  
 해끔하다 해웁스름하다……

(62)의 것들은 ‘\*갈다, \*낡다’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음 (63)과 같이 IC 분석이 되어야 한다.

- (63) [[[ {길} {음} ]]기름 [모음대립]]가름 [하] ]가름하-

그러나 ‘여틈하다’의 경우에는 ‘야틈하다, 얕다, 옅다’가 다 존재하므로 ‘야틈하다’와 ‘옅다’의 어느 쪽에서 나온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3. 2. 單語形成의 出力의 意味

本章에서는 接尾辭 ‘-디-, -다랗-, -직(하)-, -으스름(하)-, -얗-’을 중심으로 이들에 의한 단어형성에서 나타나는 意味變化를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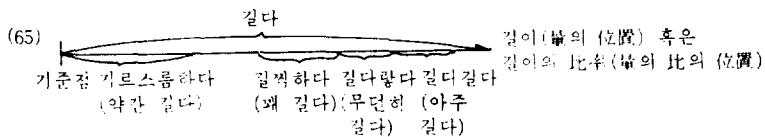
우리는 2章에서 [+量]의 형용사가 [+計量]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

18) ‘사람이 도탑다’와 같이 어떤 추상적인 양이 많다는 뜻의 ‘도탑다’는 존재하나 ‘도톰하다’의 구체적인 空間量이 많다는 뜻에 대응하는 ‘도탑다’는 없다.

을 보았는데, 위의 접미사들이 나타날 때는 [+計量]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 (64) 뱃줄이 20m 정도 (더) {걸다, \*길더길다, \*기다랗다, \*길찍하다, \*기르스름하다}

2. 3. 에서 ‘길다’는 문맥에 따라 4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걸다’과 ‘길다’는 [-計量]의 의미를 가지는데, ‘길다’에서는 ‘길이’의 척도상에 기준점이 있었고 ‘길다’에서는 ‘길이의 比率’의 척도상에 기준점이 있었다. 다음 (65)에서 ‘길다’는 단순히 대상점이 기준점 오른쪽에 있음을 표현하는데, 그 대상점의 위치를 더욱 한정하는 것이 위의 접미사들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 접미사들의 의미는 대개 어떤 程度副詞로 나타낼 수 있다. ‘-더-’는 ‘아주’에 ‘-다랗-’은 ‘무연히’에 (李敬雨 1981), ‘-직-’은 ‘째’에 ‘-으스름-’은 ‘약간’에 가까운 程度的意味를 나타낸다.



이러한 尺度上의 관계는 다음 (66)의 예문들로 확인될 수 있다.

- (66) 여의봉이 기르스름하더니 점점 더 길어져서 길찍해지고, 기다래지고, 지금은 길더길다.

그리고 最大의 길이는 오른 쪽의 전범위를 포함하는 ‘길다’를 부사로 수식함으로써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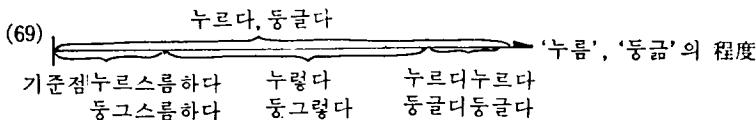
- (67) 여의봉이 길더길었는데 지금은 아까보다 더 길다.

‘-으스름-’은 대개 [+量]의 의미(그중에서도 量의 位量)보다는 [-

量] (量의 比의 位置)의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실의 모양’을 생각하기 어려운 (68a)는 그 성립이 의심스럽고 반면에 ‘얼굴의 모양’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68b)는 문장도 자연스럽다 (cf. 앞 예문(34, 35)).

- (68) a. ?저 실은 좀 기르스름하다.  
b. 철수의 얼굴은 좀 기르스름하다.

한편 ‘-양-’은 ‘-다랗-’과 비슷하게 ‘무언히’에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sup>19)</sup>



(65)에서는 ‘-더-’와 ‘-으스름(하)-’ 사이에 ‘-다랗-’, ‘-직(하)-’가 있었으나 (69)에서는 ‘-더-’와 ‘-으스름(하)-’ 사이에 ‘-양-’만이 위치한다. 그래서 ‘-양-’의 의미영역은 ‘-다랗-’의 의미영역과 ‘-직-’의 의미영역까지 포함하는 듯하다. 그래서 ‘-양-’이 의미하는 程度의 범위가 넓어서 ‘-양-’ 파생어와 단일어의 의미차가 그만큼 덜 느껴진다고 생각된다. ‘-더-’, ‘-양-’, ‘-으스름(하)-’의 의미 관계는 다음 (70)의 예문으로 확인될 수 있다.

- (70) 둉그스름하면 형체가 점점 더 둉글어져서 둉그렇게 보이고, 드디어 둉글 더 둉글게 보였다.

단일어인 視覺形容詞는 본래 객관적인 視覺的 知覺의 내용을 표현하지만 비유적으로 확장된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들 단일어가 ‘-다랗-’, ‘-양-’, ‘-직-’, ‘-으스름-’에 의해 합성어가 되면 비유적 의미로의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파생어 형성에서의 의미 변화를

19) 宋喆儀(1971: 31)에서는 ‘-양-’이 ‘-아+흐-’로부터의 발달이라면 ‘-다랗-’은 ‘-다라+흐-’로부터의 발달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한 바 있다.

다른 李敬雨(1981)에서는 ‘-다랗-, -직하-, -숙하-’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 준 바 있는데, 그는 이를 합성어의 語彙內項 (lexical entry)에서 주어 명사구에 [+구체성]이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主語選擇制約의 變化로 이해했다(李敬雨 1981 : 233-8).

그러한 의미 변화는 ‘-다랗, -직하-, -숙하-’ 외에 다음과 같이 ‘-으스름하-’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얗-’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미변화가 일반적으로는 인정되나 썩 분명하지는 않다.

- (71) 그 사람은 마음이 {검다, \*거무스름하다, ?거멓다}.
- (72) 철수는 성격이 {둥글다, \*둥그스름하다, ??둥그렇다}.
- (73) 마음이 {맑다, \*말그스름하다, ??말갛다}

이러한 제한은 ‘-음하-, -웃하-, -척하-’ 등에서도 볼 수 있어 [[어간-접미사]어근-하]어간 型의 모든 視覺形容詞에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 (74) a. {푸른, \*푸릇푸릇한} 꿈.
- b. 시간이 {짙다, \*기름하다}.
- c. 마음이 {좁다, \*조붓하다}.
- d. 마음이 {넓다, \*넓적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개의 예외가 있다.

- (75) a. 정신이 {흐리다, 흐릿하다}.
- b. 하늘이 {흐리다, \*흐릿하다}.
- c. {\*얇은, 얄팍한} 商術
- d. {맑은, 말간} 정신(cf. 예문(73))

(75a)에서는 ‘흐릿하다’가 추상적인 의미로는 쓰일 수 없을 것이 기대되는데도 쓰였고 반대로 (75b)에서는 ‘흐릿하다’가 가능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불가능하다. (75c)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는 반대로 단일 어가 가지지 못한 추상적인 의미를 합성어가 가지고 있다. (75d)의 ‘맑

간 정신'은 '??랄간 마음'에 비해 훨씬 자연스러워 관용어적인 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71-74)의 현상이 일반적인데 비해 (75)의 현상은 몇 개 단어가 경우에 따라 보여주는 특수한 모습이라 하겠다.

'-왕-' 형용사를 포함하여, 視覺形容詞가 入力이 되는 단어형성에서 단일어의 意味明細는 본래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의 구분이 되어 있고, 본래적 의미의 부분만이 이런 유형의 단어형성 과정을 통해 합성어로 전해진다고 볼 수 있다. 합성어들은 일단 형성된 후에 입력이 된 단일어와는 독립적으로 비유적 의미를 가지도록 발달할 수도 있는데, '알파하다'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어 간-접 미사]어근-하-' 型의 시각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비유적 의미로의 발달이 어렵지만 '-더-' 복합어는 좀 더 쉽게 비유적 의미를 얻을 수 있다.

- (76) a. 철수의 둥글더둥근 성격으로도.....  
 b. 맑더맑은 정신으로도 어려운.....<sup>20)</sup>  
 c. 질더진 겨울방학  
 d. 쫌더쫑은 마음  
 e. ?그의 짐더짐은 마음씨에.....

끝으로 지금까지 본 시각형용사의 단어형성에 의한 단일어의 단어장의 분화를 생각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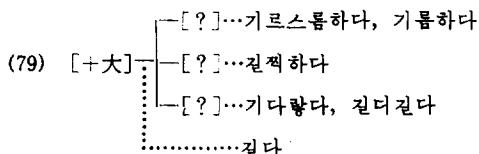
대부분의 視覺形容詞 單語形成은 計量的 표현 대신 선택된 程度性 표현의 방식으로 이해된다. [+量]의 형용사가 [+計量]의 의미를 떨 때는 그 量의 大小를 數值로써 표현할 수 있지만, [+量]의 형용사가 [-計量]의 의미를 떨 때나 [-量]의 형용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單語形成過程이 計量的 표현을 대신하는 것이다.

---

20) 졸고(1979 : 71)에서는 "정신이 맑더맑다"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76b)와 같은 적당한 문맥이 주어지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전해를 수 정한다.

- (77) 기린(모든 기린)은 목이 [길다, \*1m 정도 길다, 기르스름하다, 기름하다, 길쭉하다, 기다랗다, 길더길다].
- (78) 열 줄이 [검다, 거무스름하다, 거멓다, 검더검다].

그러므로 (77)의 ‘길다’의 意味成分 [+大]의 下位에서 ‘기르스름하다’ 등의 합성어들을 더 자세히 구별할 程度性의 意味成分들이 더 필요해지는데 그 명칭을 어떻게 정하든 ‘길다’는 다음 (79)와 같이 세분된 단어장을 가진다.



이에 비해 ‘검푸르다, 짙둥글다, 높푸르다’ 등의 [어간-어간]어간型의 복합어를 단일어 단어장에 추가하는 방식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복합어들은 한 단어의 더 세분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합에 참여한 두 형용사의 의미의 어떤 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성해 본 시각형용사의 여러 하위 意味領域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른 차원의 분류가 필요해진다. 본고는 아직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 4. 結論

본고는 지금까지 순전한 視覺的 知覺內容만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빛形容詞’, 일반적으로 視覺에 의해 지각되며, 공간속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가지는 모양, 크기, 위치를 표현하는 형용사를 ‘空間形容詞’라 하여 이들을 함께 視覺形容詞라는 語彙範疇로 포괄하고, 이들의 意味의 이들을 語基로 해서 다시 같은 범주의 視覺形容詞를 만드는 單語形成을

살펴보았다.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1. 視覺形容詞는 빛형용사 공간형용사로 나뉘고 다시 공간형용사는 모양형용사와 양형용사로 나뉜다. 이들의 意味分析은 각각 2章의 (15), (20), (26)과 같다.

2. 量形容詞는 [計量], [絕對]로써 구별되는 3 가지 用法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 [+量]→[-量]의 변화에 의해 모양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3. 모든 單一語 視覺形容詞가 '-디-'複合의 入力이 될 수 있다. [+量]의 형용사만이 '-다랗-'의 語基가 될 수 있다. '-직-'은 [+量]의 視覺形容詞에 접미한다. '-으스름-'은 [+視覺, -量]의 형용사들(빛형용사, 본래의 모양형용사, [+量]→[量]의 변화를 겪은 空間形容詞)을 語基로 한다. 이 접미사는 빛형용사와 공간형용사를 視覺形容詞로 끌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얗-'은 빛형용사와 '둥글다'만을 語基로 하는데 派生接尾辭로서의 인식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된다.

4. '-디-, -다랗-, -직-, -으스름-'의 의미는 대체로 각각 程度副詞 '아주, 무언히, 째, 약간'에 해당된다. '-얗-'은 '무언히'와 '째'에 걸치는 넓은 범위의 程度를 의미한다. 이 접미사들은 視覺形容詞가 [-計量]의 意味를 떨 때 程度性을 표현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

5. 위의 접미사들 중 '-디-'를 제외한 나머지 접미사들에 의한 합성어는 比喻的 意味로의 쓰임이 거의 불가능하다. '-디-'複合語는 어느 정도 比喻的 意味를 가질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金倉燮(1977), “現代國語의 複合動詞 研究,”「國語研究」47.
- 宋喆儀(1977), “派生語 形成斗 音韻現象,”「國語研究」38.
- 沈在箕·李基用·李廷攻(1984), 「意味論序說」, 集文堂.
- 양태식(1984), “우리말 차원 어휘소 무리의 내부 구조,”「한글」185.
- 李敬雨(1979), “派生語 形成에 있어서의 意味變化,”「國語教育」39·40 합병호.
- 李翊燮(1983), “現代國語의 反復複合語의 構造,”「國語學 研究」(白影 鄭炳昱  
先生還甲紀念論叢 I), 新丘文化社.
- 李秉根(1981), “유음 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한글」173·174 어우름.
- 최현배(1971), 「우리말본」(네번째 고침판), 경음사.
- Leech, G. (1981), *Semantics* (second edi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